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

1. 글머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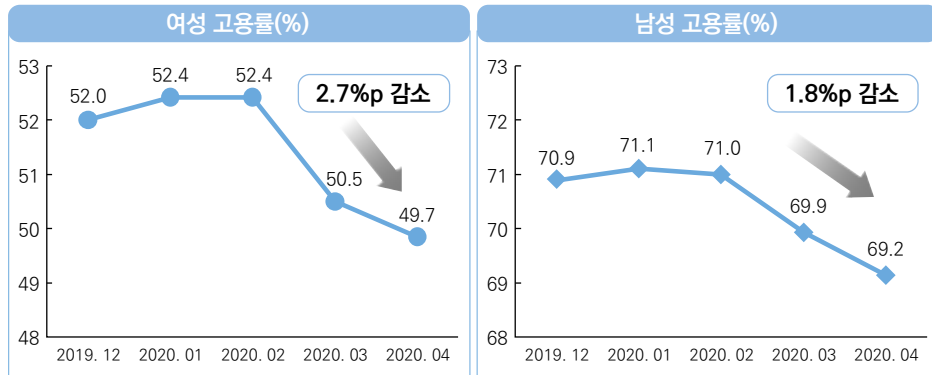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여성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고용지표를 중심으로 2020년 2월 전후의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통계청의 2020년 4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공식화된 2020년 2월과 4월 사이의 여성고용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지난 2개월 동안의 여성고용 변화는 전염병대유행이라는 재난이 여성 일자리에 좀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뿐 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여성고용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2 주요 고용지표로 본 2020년 2~4월 여성 노동시장 변화

우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남성과 여성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2020년 2월까지 상승하던 고용률이 2020년 3월과 4월 급격하게 하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19년 12월 52.0%였던 여성고용률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0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52.4%를 유지하였다. 2020년 1월과 2월의 여성고용률은 2019년 연평균 여성고용률 51.6%보다 0.8%p 높은 것으로 새해 벽두부터 한국 여성 노동시장은 활기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이 공식화된 직후인 2020년 3월과 4월 여성고용률은 급작하 하였다. 즉, 2020년 3월과 4월 여성고용률은 각각 50.5%와 49.7%로 나타난다. 2020년

* 이 글은 “코로나 이후 여성 일자리 변화와 정책 전망”(코로나19 대응 성별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럼, 2020.6.11.,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바탕으로 작성함.

단위: %



주: 증감은 2020년 4월 고용률에서 2월 고용률을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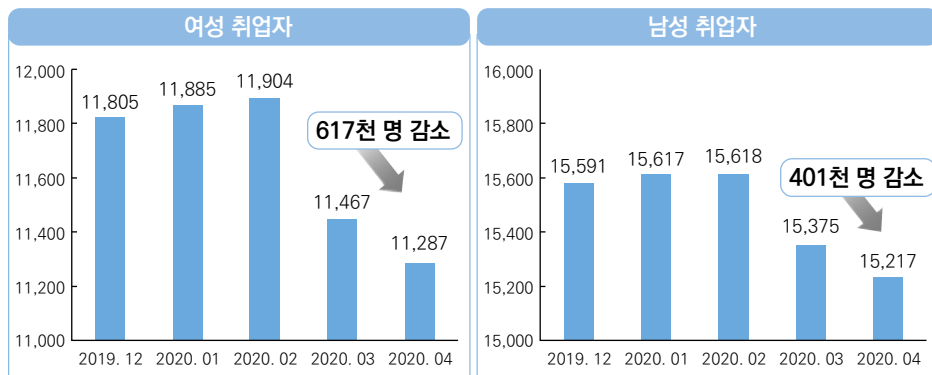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19 확산 전후 남녀 고용률 변화

2월과 4월 사이 여성고용률 감소폭은 2.7%p인데, 이것은 같은 기간의 남성고용률 감소폭 1.8%p에 비해 1.5배 큰 것이다. 고용률의 측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1.5배 강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고용률의 감소는 실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의 감소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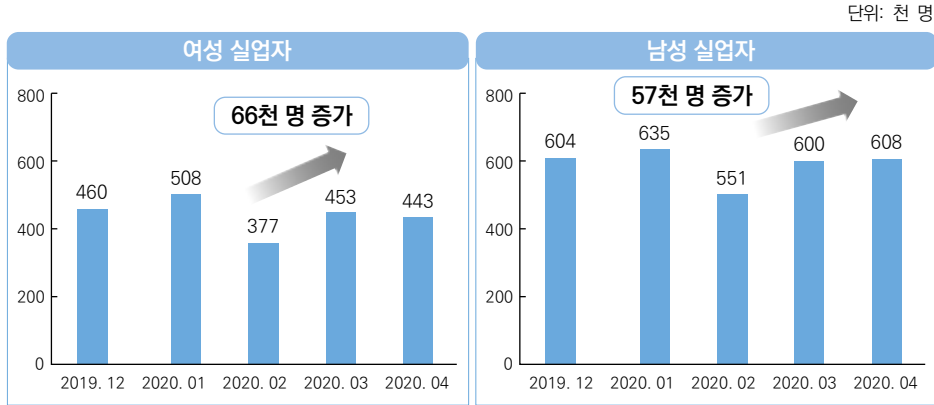
1천 180만 5천 명 수준이었던 여성 취업자는 2020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1천 188만 5천 명과 1천 190만 4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 3월과 4월 여성 취업자 수는 각각 1천 146만 7천 명과 1천 128만 7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2~4월 여성 취업자 감소는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 규모가 처음으로 1천 132만 명에 도달했던 2017년 2월 이전

단위: 천 명



주: 증감 인원은 2020년 4월 인원에서 2월 인원을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합

[그림 2] 코로나19 확산 전후 남녀 취업자 규모 변화



주: 증감 인원은 2020년 4월 인원에서 2월 인원을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합

【그림 3】 코로나19 확산 전후 남녀 실업자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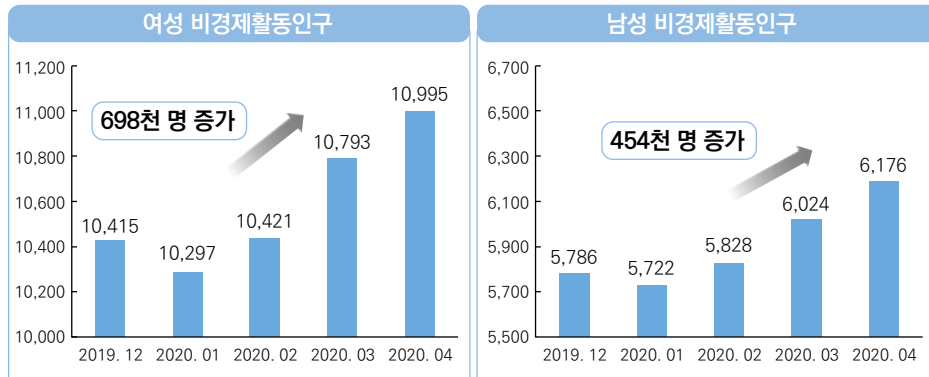
수준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한편, 2020년 2월과 4월 사이에 남성 취업자는 1천 560만 1천 명에서 1천 521만 7천 명으로 4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여성 취업자 감소폭 61만 7천 명은 남성 취업자 감소폭에 비해 1.5배 이상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하고 있는 사람(취업자)의 감소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실업자)과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여성 실업자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12월 46만 명이었던 여성 실업자는 2020년 1월 50만 8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월에는 다시 37만 7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성 실업자는 2020년 3월 45만 3천 명, 4월에는 44만 3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4월 여성 실업자 규모는 2020년 2월에 비해 6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남성 실업자 역시 2020년 2월 55만 1천 명에서 3월 60만 명, 4월 60만 8천 명으로 증가한다. 2020년 2월과 4월 사이 여성 실업자가 남성 실업자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도 함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1천 41만 5천 명이었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1월 1천 29만 7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20년 2월 1천 42만 1천 명으로 2019년 12월 수준으로 증가했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3월에는 약 1천 80만 명, 2020년 4월에는 약 1천 1백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2020년 2월과 4월 사이에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69만 8천 명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 3월 여성 실업자와 여성 취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가운데, 2020년 4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하는 현상은 2020년 3월 여성 실업자 가운데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상태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3~4월 사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정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이 있으나 출근을 하지 않는 일시휴직자는 회사 사정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특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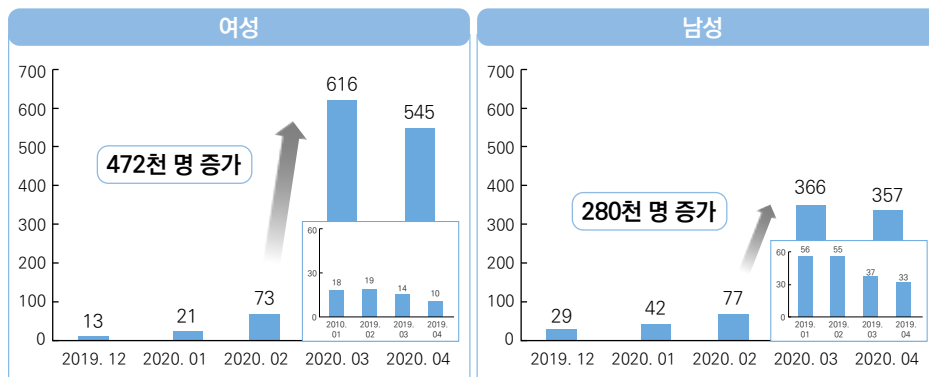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증감 인원은 2020년 4월 인원에서 2월 인원을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

[그림 4] 코로나19 확산 전후 남녀 비경제활동인구 규모 변화

단위: 천 명



주: 증감 인원은 2020년 4월 인원에서 2월 인원을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분석 결과

[그림 5] 코로나19 확산 전후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남녀 일시휴직자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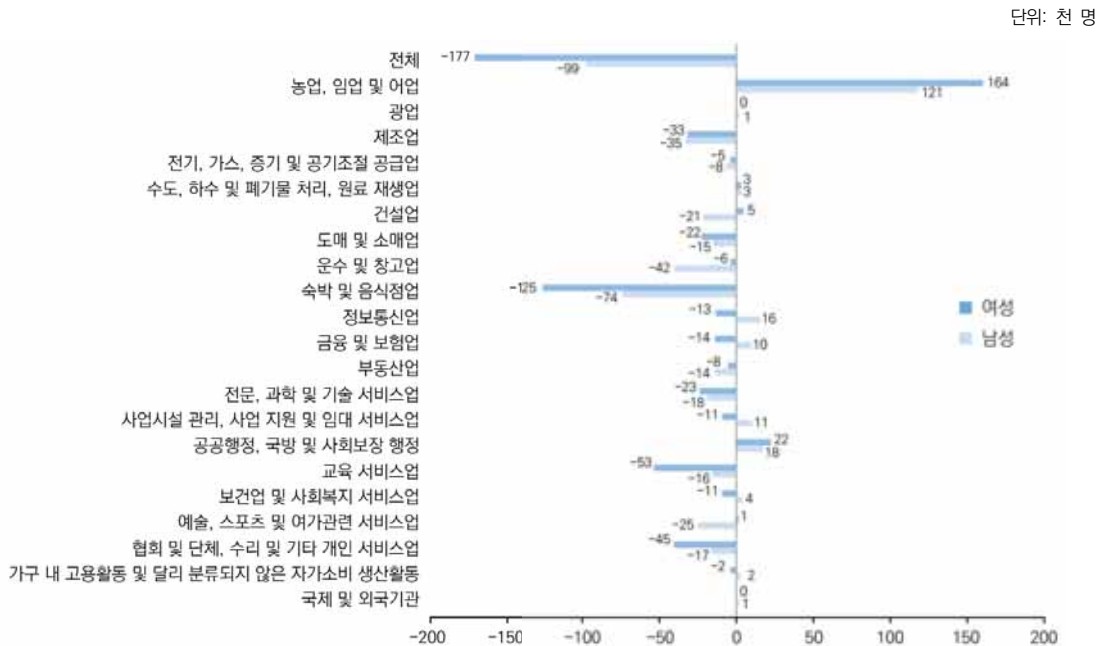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해 일시휴직한 경우에는 실업의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클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경우에도 지난 2월과 4월 사이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사이에 여성 취업자 가운데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는 10만명에

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3월과 4월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여성 일시휴직자는 각각 61만 6천 명과 54만 5천 명으로 나타난다. 2020년 4월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여성 일시휴직자는 2020년 2월에 비해 7.6배가 증가한 것이다. 2020년 1월과 4월 사이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여성 일시휴직자 증가 현상은 2019년 1월과 4월

사이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여성 일시휴직자가 2만 명 미만이었으며, 2월과 4월 사이에는 점차 감소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도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2020년 2월 7만 7천 명에서 4월에 35만 7천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2~4월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증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7배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 3월과 4월 사이 남녀 모두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와 전체 취업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2020년 3월 당시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대부분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2020년 2~4월 여성 취업자 변화

한편 2020년 2월과 4월 사이의 여성 취업자 증감을 일자리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20년 2월과 4월 사이 여성 취업자 증감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두 달 사이에 12만 5천 명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는 교육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가 두 달 사이에 각각 5만 3천 명과 4만 5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변화에 민감하고, 대면 접촉이 빈번한 업종에 취업하고 있던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여성 종사자는 두 달 사이에 16만 4천 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종사자는 2만 2천 명이 증가하였다.



주: 2020년 2~4월 취업자 증감은 4월 취업자 수에서 2월 취업자 수를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그림 6] 2020년 2~4월 업종별 남녀 취업자 증감

다음으로 2020년 2월과 4월 사이 여성 취업자 증감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가 두 달 사이에 13만 3천 명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만 4천 명, 판매종사자 4만 명, 단순노무종사자 10만 9천 명의 순으로 두 달 사이에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직종의 여성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산 직후에 실직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도 서비스 종사자 7만 7천 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만 8천 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만 6천 명 등이 두 달 사이에 일자리를 많이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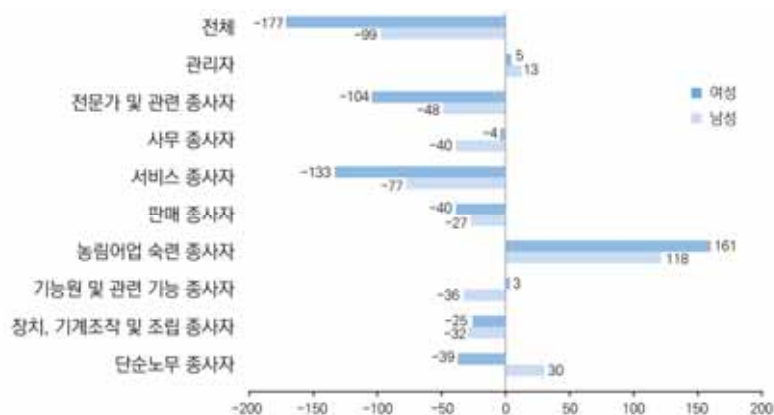
종사자규모별로 2020년 2월과 4월 사이 여성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종사자가 5~9명인 사업체의 여성 노동자가 두 달 사이에 6만 7천 명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는 종사자규모가 30~99명인 사업체의 여성 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두 달 사이에 5만 6천 명이 감소하였다. 주로 100인 미만 사업체의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두 달 사이에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종사상지위별로 2020년 2월과 4월 사이 여성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임시근로자가 두 달 사이에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많은 18만 7천 명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는 상용근로자 12만 4천 명, 일용근로자 3만 명의 일자리가 두 달 사이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의 여성 일자리 감소가 임시·일용직 등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우선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두 달 사이에 여성 무급가족 종사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각각 9만 7천 명과 3만 9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임금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노동을 계속하고, 경기 악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위해 더 많은 여성들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2020년 2월과 4월 사이 여성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여성의 일자리가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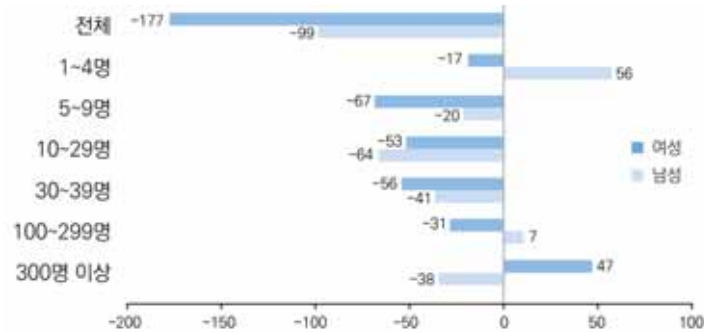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2020년 2~4월 취업자 증감은 4월 취업자 수에서 2월 취업자 수를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그림 7] 2020년 2~4월 직종별 남녀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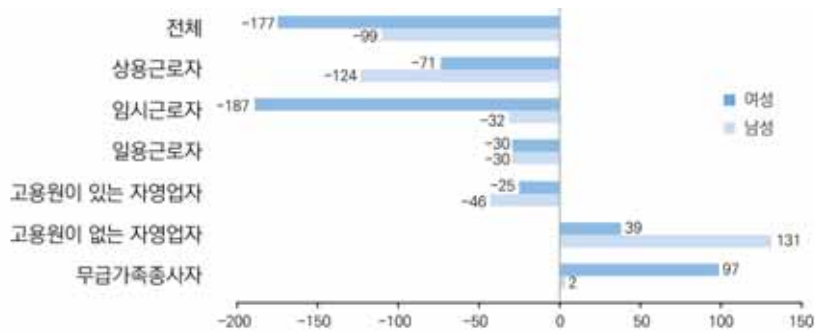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2020년 2~4월 취업자 증감은 4월 취업자 수에서 2월 취업자 수를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그림 8] 2020년 2~4월 종사자규모별 남녀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주. 2020년 2~4월 취업자 증감은 4월 취업자 수에서 2월 취업자 수를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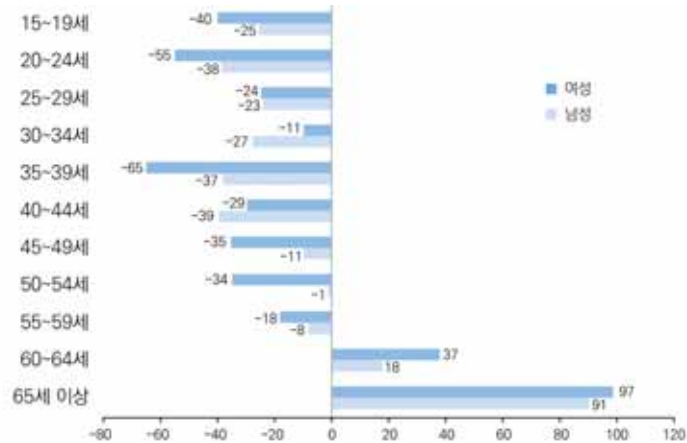
[그림 9] 2020년 2~4월 종사상지위별 남녀 취업자 증감

구체적으로 35~39세 여성 취업자가 두 달 사이에 6만 5천 명, 20~24세 여성 취업자는 5만 5천 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20~24세 여성과 35~39세 여성의 2020년 4월 취업자는 2월 취업자에 비해 각각 7.8%p와 5.6%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와 30대 청년 여성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한파의 피해를 일차적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 직후 2개월 동안의 여성고용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감소의 일차적인 피해를 여성이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 나타나는 해고 등의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단위: 천 명



주. 2020년 2~4월 취업자 증감은 4월 취업자 수에서 2월 취업자 수를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그림 10] 2020년 2~4월 연령대별 남녀 취업자 증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실업과 일시휴직 상태에 처한 남녀 노동자의 소득 보장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감염병대유행(pandemic)이 예견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 노동자들이 현재와 같은 고용 감소와 일시휴직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염병대유행 초기부터 전기 여성

고용 위기 업종과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여성 해고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염병대유행으로 인해 실직한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고용창출장려금 특별 지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병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접촉 확대에 대응한 새로운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새로운 형태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예방과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